

LG전자, OLED 기술 고도화... 글로벌 TV 시장 잡는다

‘더 넥스트 OLED’ 화질 구현
밝기·컬러·빛 반사 대폭 개선
“프리미엄 제품 경쟁력 강화”

LG전자가 ‘더 넥스트 OLED’를 앞세워 밝기와 빛 반사를 동시에 개선한 차세대 TV로 프리미엄 시장 재편에 나섰다.

LG전자는 25일 제품 공개 간담회를 열고 2026년형 TV 신제품을 공개했다. 신제품은 ▲LG 올레드 에보(evo) ▲LG 마이크로 RGB 에보(evo) 두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백선필 LG전자 디스플레이 CX담당은 “밝기와 컬러를 개선하고 빛 반사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등 화질 전반을 끌어올려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했다”며 “OLED를 중심으로 시장 주도권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제품은 밝기·컬러·빛 반사를 동시



모델들이 빛 반사를 획기적으로 줄여 최신 올레드 TV의 화질을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신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LG전자

에 개선한 ‘더 넥스트 OLED’ 화질을 구현했다. 일반 OLED(B6) 대비 최대 3.9배 밝기를 구현했고 ‘하이퍼 래디언트 컬러’ 기술로 색 정확도를 높였다. 여기에 초저반사 기술 ‘리플렉션 프리 프리

미엄’을 적용해 빛 반사도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밝은 실내 환경에서도 퍼펙트 블랙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LG전자에 따르면 500룩스 환경에서 블랙 휘

도는 0.02~0.03니트 수준으로 기준치(0.24니트 이하)를 크게 밑돌았다.

LG전자는 이날 국내를 시작으로 신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순차 출시한다. W6와 마이크로 RGB TV도 상반기 선보일 예정이다.

가격은 OLED가 프리미엄 제품군임에도 소비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형성된다. 국내 출하가는 65형 기준 329만~379만원, 77형 기준 569만~870만원, 83형 기준 790만~1300만원 수준이다.

백 담당은 “현재 글로벌 OLED 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60~70%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며 “전체 공급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도 충분한 물량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LG전자는 보급형 확대도 병행한다. SD 패널 기반 제품으로 가격 접근성을 높이고 퍼펙트 블랙과 컬러 등 핵심 성

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신개념 홈 오디오 시스템인 ‘LG 사운드 스위트 AI’ 체험이 진행됐다. 프리미엄 TV에 LG 사운드 스위트 연동함으로써 공간 맞춤형 입체 음향을 구현했다. 프리미엄 TV에는 스피커를 자유롭게 배치해도 위치를 감지하는 ‘돌비 애트모스 플렉스 커넥트’가 지원된다. 이에 복수 기기 연결 시 음향의 밀도가 확연히 개선되면서 극장과 같은 공간감도 경험할 수 있다.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기능도 공개됐다. 사용자가 장르와 분위기를 선택하면 맞춤형 음악과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파티 분위기를 반영한 이미지와 음악이 동시에 구현됐다. webOS26에는 코파일럿과 제미니를 탑재해 멀티 AI 기반 개인 맞춤형 기능도 강화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 공개... 휘발유 1934원

(정유사 공급가 기준)

1차 대비 유종별 리터당 210원 인상
유류세 인하폭 확대... 5월말까지 적용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를 통해 중전 1차 고시보다 유종별 리터당 210원씩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주부터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2000원을 넘을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공개하고, 27일 0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이는 1차 차고가격 대비 각각 210원씩 인상된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번 최고가격에 대해 “1차 최고가격에 국제가격 상승률을 반영하고, 그외 추가적으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유가 상승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2차 최고가격에 반영했다.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분을 7% → 15%로 확대해 리터당 65원 인하, 경유(10% → 25%)는 리터당 87원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 등유의 유류세는 현재 법정 최대치인 30%로 인하한 상태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는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최고가격은 기존에 적용되던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실내 등유에 어떤 경영부담을 고려해 ‘선박용 경유’도 대상 유종에 추가했다.

이번 최고가격은 정유사 공급가 기준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은 이보다 높아진다. 유류소별 현재 보유한 석유제품이

소진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주부터 주유소 판매가격은 리터당 2000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 수급관리를 위해 현재 70% 대인 원전 가동률은 80% 이상으로 높이고, 석탄발전 상한 제약(80%) 해제, 석탄발전소(2기) 폐지 시기 연장 등도 추진한다. 카타르산 LNG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LNG 스와프’ 등을 추진하고, LNG 발전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는 엄격 단속하고 민간은 자율 5부제 시행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중교통 요금할인을 검토하고 공공·대기업 사차출퇴근, LNG발전 급증시간대 전기 사용자 등 캠페인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자율주행 산업, 데이터 선순환 구조에 성패”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유병용 “핵심은 다양한 상황 대응 능력”
정하욱 “데이터 플라이 휠’ 돌아가야”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의 성패는 데이터 수집, 인공지능(AI) 학습, 모델 개선, 검증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선순환 구조’에 달려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행환경에서의 데이터를 확보해 기술 고도화로 이어가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26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열린 제13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에서 열린 ‘피지컬 AI의 진화: 자율주행차, 자율운항 선박과 로봇’ 세미나에는 자율주행, 해운·조선, AI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피지컬 AI 기술 진화에 따른 산

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조명했다.

유병용 A2Z 부사장은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이 국가별로 차이점은 있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하며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을 데이터로 축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율주행 기술 경쟁의 핵심은 다양한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다”며 “청계천 등 돌발 변수가 많은 장소에서의 주행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기술 고도화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AI업체 라이드플렉스 정하욱 부대표는 “데이터 플라이 휠’이 지속적으로 돌아가야 기술이 고도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성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고양특례시

2026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꽃, 시간을 물들인다

4.24(금) ~ 5.10(일)

일산호수공원

고양국제꽃박람회재단
Goyang International Expo Foundation